DBpia

신라가요(新羅歌謠)와 그 기술물(記述物)과의 관계

A Study on relation of Silla poetry and descriptive things

저자 (Authors) 임기중

출처 (Source) 동악어문학 14, 1981.3, 21-30 (10 pages)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14, 1981.3, 21-30 (10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악어문학회
Dong-ak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2521

APA Style 임기중 (1981). 신라가요(新羅歌謠)와 그 기술물(記述物)과의 관계. 동악어문학, 14, 21-3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22 17:1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歌謠와 그 記述物과의 관계

林 基 中

I

傳統의 소산인 呪力觀念을 논술함에 있어서는 新羅歌謠에 대한 文獻資料의 限界性을 타개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나, 또는 전체를 통한 부분의 이해가 부분을 통한 전체의 이해보다는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볼 때에도 新羅歌謠와 그 記述物은 時空的인 배경을 확대해서 呪力觀念을 追跡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視野의 확대로 인해서 초점이 흐려진 채로 윤곽만 드러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新羅歌謠와 그 記述物에다가 초점을 맞추고서 그의 內面構造를 直視할 필요성이 있으며, 新羅歌謠에서 그의 外廓 쪽으로 視角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新羅歌謠와 그 記述物의 內質과 呪力觀念과의 관계를 가능한 한 多角的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고, 나아가서는 視野를 新羅歌謠의 밖으로 확대해 보고자 한다. 歌謠의 解讀은 梁柱東의 것을 따르되, 異見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해독을 참고하여 보충하기로 한다.

II

新羅歌謠와 그 記述物과의 관계를 보면, 노래가 記述物의 文脈 안에 들어있는 것과 노래가 記述物의 文脈 밖에 나와 있는 것의 두가지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를 좀더 細分해서 보면, ① 노래가 主이고 記述物은 그 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2 17:12(KST)

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② 記述物이 主이고 노래는 부수적인 것, ③ 노래와 記述物이 並立돼 있는 것, ④ 노래만 전하고 記述物은 전하지 않는 것 등, 4가지의 類型이 있다. 이 중에서 세번째 항만 노래가 記述物의 文脈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 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노래가 記述物의 문맥 밖에 있는 것들이다.

첫째, 노래가 主이고 記述物은 그 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는 〈安民歌〉, 〈盲兒得眼歌〉, 〈兜率歌〉, 〈彗星歌〉, 〈怨歌〉, 〈祭亡妹歌〉, 〈遇賊歌〉, 〈普賢十願歌〉와 그 記述物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노래가 記述物의 중요한 話素(motif)로 되어 있다. 따라서, 노래가 없이는 記述物의 傳承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특색이다. 《三國遺事》 卷二의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은 景德王이 榮服僧인 忠談師를 맞이한 이야기이다. 곧 "王曰 然則爲朕 作理安民歌 僧應時奉勅歌呈之"의 〈安民歌〉를 위해서 記述物이 있다.

景德王이 忠談師로 하여금 〈安民歌〉를 짓게 할 무렵은 계속되는 많은 天變 등으로[1] 인해서 王이 몹시 불안해하던 때이다. 그런데 雪上加霜으로 五岳三山神이 殿庭에 나타나 國亂의 조짐을 보이므로 景德王은 新羅歌謠의 呪的 效驗(呪力)으로써 나라의 어지러움을 막아보고자 해서 "爲朕 作理安民歌" 하도록 한 것이다. 王의 이러한 생각에는 몇 년전 同王 19년의 〈兜率歌〉에 의한 "日怪卽滅"의 관념이 직접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新羅歌謠에 대한 전통적인 呪力觀念에서 기인한 禳災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山神의 출현이 國亡의 징조임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확인이 된다.

> 又幸鮑石亭 南山神現舞於御前 〈略〉 乃地神山神知國將亡 故作舞以警之 〈略〉 故國終亡.[2]

여기에서 山神의 出現이 國亡과 災怪의 조짐인 것처럼 〈安民歌〉의 "五岳三山神等 時或現 侍於殿庭"의 記述도 같은 豫徵으로 볼 수 있다.

---

1) 三國史記의 景德王 15年부터 安民歌가 지어진 同 二十四年까지에 보면 大雷, 大風, 彗星出現, 上疏極論時政得失 등의 기록이 있다.
2) 三國遺事, 卷二 處容郞 望海寺.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2 17:12(KST)

그리고, 記述物 중의 "五岳三山神等 時或現 侍於殿庭……然則爲朕 作理安民歌"가 歌謠의 "아으, 君답게, 臣답게, 民답게 할지면 나라 안이 태평하니이다"에 '太平'으로 반영된 것 역시 이 노래로서 五岳三山神의 출현이 豫徵하는 國亂을 예방하려고 한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三國遺事》卷三 '芬皇寺 千手大悲 盲兒得眼'은 "令兒作歌禱之 遂得明"이 중요한 話素의 하나인데, 이것은 〈盲兒得眼歌〉가 없이는 得眼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한갓 "禱之"가 아니라 "作歌禱之"가 그 要因이다. 또한 千眼을 가졌다는 千手大悲像은 呪術心理를 움직인 것이고 직접적으로 呪力을 발동시킨 것은 노래이다. 그 記述物의 "千手大悲前 令兒作歌禱之", "而忽盲"과 노래의 "무릅을 곧추며 두 손바닥 모으와 千手觀音前에 비옴을 두노이다", "둘 없는 내라"와는 서로 일치되는 표현으로서, 그 記述物은 노래의 내용과 효험에 대해서 소상히 明徵하고 있다. 《三國遺事》卷五 '月明師 兜率歌'의 記述物은 僧 대신 國仙이, 啓請 대신에 鄕歌가, 梵聲 대신에 國歌가 日怪를 即滅케 했다는 〈兜率歌〉의 呪歌的인 효험을 기술한 대목이다.

곧, "請緣僧 作散花功德 則可禳"에 대해서 "臣僧國仙之徒", "命開壇作啓"에 대해서 "只解鄕歌……雖鄕歌可也", "不閑聲梵"에 대해서 "乃作兜率歌賦之"가 그 實證이다. 그리고, 梵聲啓請이 아닌 〈兜率歌〉와 같은 노래의 呪歌的인 효험에 대해서 부연하고 있는 것이 "明又嘗爲亡妹營齋 作鄕歌祭之 忽有驚颷吹紙 錢飛擧向西 而沒"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래에 대한 呪歌的인 인식은 〈兜率歌〉의 창작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雖用鄕歌可也"에 先驗的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두 記述物은 國仙이 지은 노래의 呪力이 중요한 話素로 되어 있다. 國仙 月明師가 지은 歌謠 없이는 그 記述物이 傳承되지 못함은 물론이다.

記述物에 밝혀 있듯이 日官이 지시한 "作散花功德"은 노래의 "오늘 이에 散花를 불러 뿌리온 꽃아"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마치 〈海歌〉의 記述物에서 한 老人이 지시한 대로 노래를 불러서 水路를 출현시킨 것과 同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2 17:12(KST)

軌의 형태를 보여 준다. 〈龜旨歌〉나 〈海歌〉에서 거북이 出現力을 갖는 呪獸로 등장한 것처럼 이 노래의 꽃은 原形回生力을 갖는 呪草로 나타나 있다. '龜乎'(龜何)에 대응하는 것이 곧 '꽃아'이다. 〈蜥蜴呪歌〉의 '蜥蜴아'도 '龜乎'나 '꽃아'와 같은 보기이다. 이들 呪歌에서 蜥蜴은 降雨力을 가진 呪獸로, 거북은 出現力을 가진 呪獸로 인식되어 呼稱된 것과 같이 '꽃'은 回生力을 가진 呪草로서 呼稱되었다. 꽃이 再生力, 回生力을 갖는 呪的 質體로서 나타나는 예는 〈엄동의 꽃〉 등을 통해서 이미 논증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노래의 꽃은 二日並現의 이전 상태로 原形을 回生시키는 呪力을 가진 質體로 놓이게 된 것이다. 꽃과 해와의 質態類感 발상도 어느 정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三國遺事》 卷五 '融天師 彗星歌 眞平王代'의 記述物은 〈彗星歌〉의 呪力, 특히 王室을 護衛하는 天師가 지은 노래의 呪力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記述物은 天師가 지은 노래의 呪力이 중요한 話素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記述物의 "星怪卽滅", "日本兵還國", "反成福慶", "大王歡喜", "遣郎遊岳焉" 등은 모두 〈彗星歌〉의 呪力의 효험이다. "星怪卽滅"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日本兵還國" 등을 부연한 것은 記述物의 내용이 노래의 효험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근거이다. 이것은 〈兜率歌〉의 효험을 〈祭亡妹歌〉로 부연한 것과도 같다.

따라서, 《三國遺事》 卷五 '感通'에 있는 月明師의 〈兜率歌〉, 〈祭亡妹歌〉와 融天師의 〈彗星歌〉는 國仙의 노래와 天師의 노래에 대한 呪歌的인 效驗譚을 적은 대문이라고 할 수 있다. 二日並現 곧 王權의 도전을 물리친 것으로 볼 때나, 國仙 金庾信 등을 생각해 볼 때, 國仙(月明)도 天師와 같은 王室守護의 직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兜率歌〉와 〈彗星歌〉는 天候調節力의 효험과 함께 王權과 王室 守護에 新羅歌謠의 呪力이 동원된 예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記述物의 "三花之徒 欲遊楓岳……遣郎遊岳焉"은 歌謠의 "三花의 산 구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2 17:12(KST)

경 오심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켜는데"로 記述物의 肯定은 노래에도 肯定으로 되어 있으며, "有彗星犯心大星……星怪卽滅"과 "日本兵還國反成福慶"은 "예전 東海 물가 乾達婆의 논 城을랑 바라보고 倭軍도 왔다고 烽火를 든 邊方이 있어라!"와 "길 쓸 별 바라보고 彗星이여! 사뢴 사람이 있구나! …… 무슨 彗星이 있을꼬"로 記述物의 否定은 노래에도 否定으로 나타나 있다. 곧 記述物이나 歌謠에서 三花之徒는 모두 楓岳에 갔으며, 彗星과 日本兵은 출현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닌 상태로 환원되었음은 주목을 요한다. 이 노래에는, 기대하는 바를 이미 성취한 것처럼 외쳐대면 결과도 또한 그대로 된다는 呪術心理가 나타나 있는데, 이는 衆口鑠金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反成福慶"이란 星怪卽滅과 日本兵還國을 旣定 사실화한 노래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三國遺事》 卷五 '信忠 掛冠'의 記述物은 "忠怨而作歌 帖於柏樹 樹忽黃悴"와 "乃召之賜爵祿 柏樹乃蘇"가 중요한 話素로 되어 있는데, 이 話素는 "歌帖於柏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怨歌〉라는 일종의 呪符文이 갖는 呪力의 효험이 없이는 이와 같은 記述物의 傳承은 아주 불가능하다. 이런 뜻에서 《文獻備考》의 다음 기록은 그러한 사실을 방증하여 주고 있다.

> 宮庭柏 孝成王在潛邸 嘗與金信忠 圍碁於柏樹下. 謂曰 他日我不忘汝 汝亦不改貞操 有所負者 有如此柏. 未幾 王即位 錄功臣 而遺信忠, 信忠以歌貼於柏樹 樹忽枯 王聞之, 驚曰 幾忘乎角弓矣, 即賜爵柏乃蘇.[3]

여기에서 보면 비록 부분적이긴 하나 《三國遺事》의 내용과 달라진 점이 몇 군데 있다. 그러나, "貼於柏樹 樹忽枯"와 "即賜爵 柏乃蘇"는 다르지 않으며, 또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呪力을 나무의 異相에 작용하게 한 發想은 나무의 異相은 王權의 盛衰와 관련이 있으므로,[4] 木異가 孝成王의 주목을 가장 쉽게 끌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增補文獻備考, 卷百六 樂考十七.
4) 延喜九年 陽城局竹柏葉 有傷者占曰 天子凶. 〈增補文獻備考, 卷十一〉. 仁壽四年八月 河間柳樹 無故枯落既面花葉復生 京房易飛候曰 木再榮國有大喪. 〈文獻通考, 卷二九九〉.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2 17:12(KST)

이러한 木異에 〈怨歌〉가 직접 작용하는 것은 당시 新羅歌謠에 대한 呪歌的인 인식 태도를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記述物의 "他日若忘卿 有如柏樹 信忠興拜"와 "忠怨而作歌"는 歌謠의 "둘의 잣이 가을에 안 이울어지매 너를 어찌 잊어? 하신, 우러르던 낯이 계시온데"와 "누리도 싫은지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三國遺事》卷五 '永才遇賊'의 記述物은 도적을 감동케 한 요소가 가장 중요한 話素인데 盜賊의 감동은 "賊衆聞其名乃命 □□□ 作歌……賊感其意"와 "以餞一生 何敢受焉 乃投之地……賊又感其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遇賊歌〉가 그 발단이 된다. 따라서, 이 記述物은 〈遇賊歌〉로서 도적을 落髮爲徒케 했다는 내용인 것이다. 新羅歌謠의 효험을 적고 있다는 점은 前揭한 노래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 노래의 創作의 발상은 前揭한 바와 같은 呪歌的 발상이 아니며, 이 노래에는 記述物의 내용이 앞의 노래와 같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 까닭은 이 노래의 효험이 呪歌的인 효험이 아니라 文學的 감동의 효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의 노래들을 呪歌的인 抒情詩라고 한다면, 이 노래와 均如大師의 〈普賢十願歌〉 등은 佛教的인 抒情詩라고 할 수 있다.

《均如傳》第七 歌行化世分者의 記述物에서 "欲笑誦者 則結誦願之因 欲毁念者 則獲念願之益"은 〈普賢十願歌〉의 기대되는 효험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作歌의 의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의도에 부합되는 결과가 〈總結无盡歌〉의 뒤에 부연된 "往往書諸墻壁"한 것이나 "勸令常誦"케 하여 不能醫療의 病疾에 효험이 생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노래는 〈怨歌〉와 같은 呪符文的 효험과 〈盲兒得眼歌〉, 〈兜率歌〉, 〈彗星歌〉 등과 같은 呪歌的 효험을 겸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記述物의 내용이다.

이상은 모두 노래의 效驗(呪力)이 그 記述物의 중요한 話素로 되어 있어서 노래 없이는 記述物의 傳承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들이다. 그리고, 記述物이 노래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呪歌的인 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2 17:12(KST)

한편, 노래에는 스토리가 들어 있으며, 기대되는 효과가 明示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곧, 〈安民歌〉의 "아으 君답게, 臣답게, 民답게 할지면 나라안이 태평하니이다"나, 〈盲兒得眼歌〉의 "아으으, 내게 끼쳐주시면, 놓되 쓰올 慈悲 얼마나 큰고!"나, 〈彗星歌〉의 "무슨 彗星이 있을꼬" 등이 그 보기들이다.

이는 〈龜旨歌〉나 〈海歌〉 없이는 그 記述物의 전승이 거의 불가능한 점이나, 〈龜旨歌〉의 "首其現也"나 〈海歌〉의 "出水路"가 기대되는 效果를 明示하고, 이 노래에 記述物의 스토리가 들어 있다는 점과 흡사하다. 그리고, 蜥蜴祈雨呪詞의 記述物이 蜥蜴呪詞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이 노래에 "降雨滂沱"라는 기대되는 효과가 나타난 점과도 같은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安民歌〉, 〈盲兒得眼歌〉, 〈彗星歌〉는 呪歌的인 抒情詩의 성격이 보다 분명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첫째 類型에 속하는 노래는 〈遇賊歌〉를 제외하고는 모두 呪歌的인 성격과 아울러서 呪力의 효험을 가진 것들이다. 〈遇賊歌〉 역시 呪歌的인 작품은 아니지만 효험이 나타난 노래다.

둘째, 記述物이 主이고 노래는 다만 부수적으로 첨가되어 있는 것에는 〈願往生歌〉, 〈風謠〉, 〈慕竹旨郎歌〉, 〈獻花歌〉와 그 記述物이 있다. 이것은 歌謠가 없어도 記述物의 傳承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경우이다.

《三國遺事》 卷五 '廣德 嚴莊'의 記述物에 〈願往生歌〉는 "德嘗有歌云"이라고 하여 後添되어 있을 뿐이며, 同書 卷四 '良志使錫'의 記述物에 〈風謠〉는 "其塑靈廟之丈六也 自入定 以正受所對 爲揉式 故京城士女爭運泥土風謠云"이라 하여 釋良志의 이야기 속에 한낱 부연적인 요소로서만 첨가되어 있다. 그리고, 同書 卷二, '孝昭王代 竹旨郎'의 記述物에 〈慕竹旨郎歌〉는 "初得烏谷 慕郎而作歌曰"이라 하여 別添 형식으로 첨가되어 있다. 여기에서 "初得烏谷"의 初는 "德嘗有歌"의 嘗에 대응하는 표현으로서 〈願往生歌〉나 〈慕竹旨郎歌〉가 모두 記述物에 부수적으로 첨가되었음을 뜻하는 표현이다.

同書 卷二 '水路夫人'의 記述物에 〈獻花歌〉는 완전히 文脈 밖에다가 "老人獻花歌曰"이라 別添하고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2 17:12(KST)

이 둘째 유형의 記述物은 첫째 유형과는 달리 旋德, 良志, 竹旨郞, 水路와 老翁의 非凡性이 중요한 話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는 부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유형은 노래의 효험, 곧 呪力이 話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가 主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째 유형에 속한 노래는 전혀 呪歌的인 성격을 갖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첫째 유형과는 달리 記述物과 노래의 내용이 직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노래가 '너'와 '나'의 대칭적 관계를 보여주는 전통적인 抒情詩의 특질을 가진 작품이다.

세째, 노래와 記述物이 竝立되어 있는 것으로는 〈處容歌〉, 〈薯童謠〉와 그 記述物이 있다. 《三國遺事》 卷二 '處容郞 望海寺'와 '武王'의 관련 記述物 부분과 노래의 관계를 話素別로 정리해서 對比해 보면 다음과 같다.

處容郞 望海寺	武 王
① 龍子 處容과 美妻와의 결혼 ② 歌謠의 소개 ③ 歌舞로 疫神 퇴치(歌 十 舞) ④ 疫神의 말에 따라서 處容形像의 呪的 偶像化(門神이 되다)	① 龍子 薯童과 美公主와의 결혼 ② 歌謠의 소개 ③ 歌謠의 群唱으로 娶妻(歌十衆口) ④ 知命法師의 神通力으로 薯童의 呪的 偶像化(國王이 되다)

이와 같이 歌謠가 記述物 속에 있는 몇 개의 話素들 가운데서 다만 하나의 話素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노래는 記述物의 文脈 속에 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 노래와 記述物의 관계도 竝立的일 수밖에 없다. 곧 記述物이 없이 노래만 있을 수도, 노래가 없이 記述物만 있을 수도 없는 관계, 記述物과 노래가 並存해야만 하는 관계를 갖는 것이 이 유형이다.

龍子 處容에 대해서 美妻나, 龍子 薯童에 대해서 美妻 公主는 美와 王女인 공주가 話素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 記述物의 "甚美"나 "無雙"이 그런 强化的인 표현이다. 이는 至賤者와 至尊者의 결합이 흥미를 더해주는 話素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武王의 이야기가 훨씬 더 說話的이다. "常掘薯蕷 賣爲活業"의 薯童이 공주, 그 중에서도 美公主, 그 중에서도 美艶無雙의 공주와 결합한다는 것이 그러하다. 불가능한 것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2 17:12(KST)

가능케 발전시켜서 至賤과 至尊이 결합하도록 하는 것은 흥미를 고조할 수 있는 요소임에 틀림 없다. 그리고, 歌舞로서 疫神을 퇴치했다는 것이나, 衆口의 歌唱으로써 娶妻를 했다는 것은 노래가 가진 효험, 곧 呪力이 話素가 된 것이다. 이것은 첫째 유형의 노래가 갖는 특성과도 같은 현상이다. "乃唱歌作舞 而退歌曰"로 記述物에 〈處容歌〉를 삽입시키고, "乃作謠誘群童 而唱之云"으로 記述物에 〈薯童謠〉를 삽입시킨 것은 이 두 노래에 대한 기술태도가 유사함을 보여주면서 한편, 첫째 유형에서 노래에 記述物을 종속시킨 기술태도나, 둘째 유형에서 '初'나 '嘗'자를 써서 記述物에 노래를 첨가시킨 기술 태도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보여준다.

處容과 薯童이 呪的 偶像化가 되는 것을 보면 處容은 疫神의 입을 통해서 되지만 薯童은 知命法師의 神通力을 빌어서 되는데, 이것은 佛教的인 윤색의 차이인 것같다. 前者는 望海寺緣起로, 後者는 知命法師의 神通力으로 일단계의 佛教的 윤색이 됨에 있어서 後者가 知命法師의 神通力으로서 윤색되는 것은, 薯童은 國王이 된다는 것 자체가 더 훌륭한 話素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薯童이 神通力을 가졌다면 그것이 곧 話素가 되는 것인데, 그가 직접 神通力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國王이 된다는 것은 보다더 훌륭한 話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處容歌〉의 記述物 중에서 "其一子 隨駕入京…… 疫神欽慕之 變爲人 夜至其家 竊與之宿 處容自外至其家見寢有二人"은 歌謠의 "서울 밝긔 달에 밤드리 노니다가 드러와 자리보곤, 가라리 네히어라 둘은 내해엇고 둘흔 뉘해언고."를 설명하고 있으며, "跪於前曰"은 이 노래의 呪的 效驗譚이다. 그리고, 〈薯童謠〉의 記述物 중에서 "常掘薯蕷 賣爲活業 國人因以爲名…… 童謠滿京 達於宮禁 百官極諫 竄流公主於遠方"은 歌謠의 "善花공주님은 남그으기 얼어두고 맛둥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의 설명 역시 이 노래의 效驗譚이다. 이 두 노래에도 첫째 유형의 呪歌的 抒情詩와 마찬가지로 記述物의 스토리가 들어 있다. 특히, 〈薯童謠〉는 〈彗星歌〉와 같이 기대하는 바를 旣定 사실화해서, 〈龜旨歌〉나 〈海歌〉와 같이 衆口로서 歌唱을 하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2 17:12(KST)

록 하고 있어 呪歌的인 전통성을 보여 주고 있다.

네째, 歌謠만이 전하고 그 記述物은 전하지 않는 것에는 〈讚耆婆郎歌〉가 있다. 이 노래는 抒情歌謠가 記述物에서 탈바꿈한 예를 보여 주는 것이다. 讚嘆은 抒情詩的인 語法과 形象力의 하나이다. 따라서, 耆婆郎을 찬양한 이 서정가요에는 굳이 번거로운 記述物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으로 볼 때, 이 노래는 현전하는 新羅歌謠 중에서 대표적인 抒情詩가 되고 남는다. 梁柱東의 解讀과 評說을 비롯해서 新羅歌謠를 문학 작품으로만 접근한 論攷에서 이 노래는 아주 훌륭한 抒情詩로 평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異議가 있을 수 없다. 이 점은 筆者의 立論을 가능한 이론으로 立證하는 바라고 하겠다.

新羅歌謠는 呪力觀念의 佛敎的 變容이라고 할 수 있는 〈兜率歌〉, 〈盲兒得眼歌〉(〈祭亡妹歌〉와 〈普賢十願歌〉도 이 범주로 볼 수 있음)와 呪術的 思考의 詩的 변용이라고 할 수 있는 〈彗星歌〉, 〈薯童謠〉, 〈怨歌〉와 神話的 人物(呪術的 人物)의 詩的 변용이라고 할 수 있는 〈慕竹旨郎歌〉와 〈讚耆婆郎歌〉가 있는데, 그 중 竹旨郎이나 耆婆郎과 같은 인물의 讚詩는 완전한 抒情詩이다. 이 두 작품 중에서, 記述物에서 완전히 해방된 〈讚耆婆郎歌〉가 記述物과 관계를 가진 〈慕竹旨郎歌〉보다 내용과 형식이 더 완비된 抒情詩란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노래와 記述物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상과 같이 노래가 主이고 記述物이 그에 從屬된 것과 노래와 記述物이 竝立되어 있는 것은 노래의 呪歌的 효험 곧 呪力觀念이 작용한 것이며, 노래 역시 呪歌的 성격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서, 記述物이 主이고 노래가 부가적인 것과 記述物이 없이 노래만 전하는 것은 呪力觀念이 나타나 있지 않고 노래도 보다 抒情的이라는 사실을 歸納해 낼 수 있다. 한편, 노래의 記述物化 내지는 記述物의 歌謠化라고 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진 것은 〈龜旨歌〉나 〈海歌〉와 그 記述物과의 관계와도 같은 것으로서 呪歌的 성격이 짙은 작품이라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이 論文은 '新羅歌謠의 呪力觀念硏究'의 일부부임을 付記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22 17:12(KST)